

# 가정간호제공이 암환자의 불편감과 가족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김윤옥(서울아산병원)

우리 나라에서 암질환은 사인 1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가정간호 대상자 중에서도 약 30%를 차지하는 1순위 질환이다. 항암화학요법은 암환자 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나 그 치료에 따른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치료 시작 단계에는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부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암환자와 가족들이 질환 및 항암화학요법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와 대처 방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기 간호 능력과 가족의 돌봄을 지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차 또는 3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제공이 암환자의 불편감과 주 간호자의 가족부담감 변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간호 만족도를 파악하였고, 실험군 32명, 대조군 35명을 대상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며, 자료는 2002년 9월 12일부터 2002년 11월 2일까지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간호 이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 가정간호 의뢰 후 첫 방문은 1.88일째였고, 가정간호 이용 목적은 입원 후 회복과 건강상태 유지가 주를 이루었다. 가정간호제공 기간은 평균 14.6일이었으며, 1회 방문 당 가정간호 제공시간은 평균 35.78분이었고, 평균 4회의 가정간호가 제공되었다.

둘째,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기본간호, 교육 및 상담, 치료적 간호 영역으로 총 47개 항목이며, 1회 방문 당 평균 19개 항목의 가정간호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치료적 간호가 7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다.

셋째, 암환자의 불편감은 실험군에서는 가정간호 제공 전 2.99점에서 가정간호 제공 후 2.10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t=11.34, p=.000$ ), 대조군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 -5.966, p=.080$ ).

넷째, 암환자 주 간호자의 가족부담감은 실험군에서는 가정간호 제공 전 3.04점에서 가정간호 제공 후 2.41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t=.916, p=.000$ ), 대조군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 -3.67, p=.069$ ).

다섯째, 실험군의 가정간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3.88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4개의 하위 영역인 교육 요구에 대한 가정간호사의 지도, 가정간호사의 지식, 기술, 태도, 대인관계 및 정서적지지, 접근용이성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2차 또는 3차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환자는 가정간호를 제공받음으로써 불편감이 완화되었고, 주 간호자의 가족부담감이 감소되었으며, 가정간호 제공에 대한 간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기본간호, 교육 및 상담과 치료적 간호를 포함한 가정간호 제공이 암환자와 가족에게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였다.